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5.2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유출 도표로 드러난 유럽 경쟁력 기금 구조 ... 의회·전문가들 우려 표출(5.14)

-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연구혁신 관련 자금들을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아래 통합하는 '유럽 경쟁력 기금 (European Competitiveness Fund)'을 추진 중임
- 유출된 [도표](#)에 따르면 경쟁력 기금의 구조는 디지털화, 회복력, 국방·우주, 청정전환·탈탄소화, 보건·생명공학, 기초연구·경력지원 5개 필라로 구성.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들은 이 5개 필라에 흩어져 있으며, 디지털유럽, 유럽연결기금, 유럽방위기금 등 기존 프로그램들과 함께 묶이는 형태로 설계됨

○ 집행위 경쟁력 기금 계획, 연구혁신 통합 추진 가능성 논의(5.19)

-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(MFF) 준비회의에서 FP10을 유럽 경쟁력 기금의 다른 지원 수단과 통합할 가능성이 논의됨. 차기 MFF 핵심 요소를 요약한 [문서](#)에 따르면, 최근 유출된 경쟁력 기금 도표와 일치하게, 경쟁력 기금은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을 포함한 EU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제안되고 있음

※ (문서내용) 청정전환, 디지털전환, 회복탄력성, 국방·우주, 보건·생명공학 등 분야별 창구로 구성되며, 모든 창구에 공통 재정 도구(Toolbox)가 제공되어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

○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, FP10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럽 경쟁력 기금과 연계될 것을 언급(5.20)

-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5월 20일 연례 EU 예산 회의 연설에서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되 유럽 경쟁력 기금과 연계될 것이라고 밝힘
-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을 비롯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통합·확장해 투자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는 '진정한 경쟁력 기금'으로 전환하고자 하며, 향후 새로운 예산 구조에 대한 유럽의회 및 연구계와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